

방기인(放送技術人)의 제주탐방 - 10

한라산 북서부 중산간을 주름잡는 오름 탐방

제주시 서북부 중산간에 우뚝 솟아 한라산이 못다 보여주는 제주의 멋을 보여주는 노꼬메와 바리메오름. 사각사각 경쾌한 눈 밟는 소리와 함께 하면서 오르면 만세동산, 민대加里동산 위로 펼쳐진 설경에 흰 상투를 땀아 올린 한라산 북벽의 장관을 눈이 시리도록 즐기면서 내면에 감춰놓은 한라산 절경들을 펼쳐보며 오름탐방의 묘미를 즐긴다. 한 치 낮은 자세로 동생의 삶을 살아가는 작은오름들과 어울리며 산록서로를 통해 소통하는 산세미, 천아, 궤물오름과 안천이오름을 찾아간다. 오름과 목장과 마을을 이어주는 삶이 녹아있는 녹고뫼권역을 탐방한다.

금오름에서 본 한라산과 오름군



노꼬메오름

한라산의 거울이 깊어 갈 즈음 제주 북서쪽 중산간 최고의 만형, 서부권의 지배자(동부권은 다랑쉬오름) 노꼬메오름(표고 833.8m, 북서향말굽형화구)을 탐방한다. 소길교차로 운전면허시험장을 틀머리로 하여 해송과 삼나무 숲속으로 난 시멘트 포장, 화산재, 송이 비포장 길을 따라가면 산록서로와 만나서 잠깐 동행하고 나면 오름정보입석 맞은편 오른쪽으로 난 시멘트 포장 소길공동목장길의 잡목과 빛바랜 억새가 오름탐방안내소까지 안내한다(2.4km). 겨울 말 우리에서 풍기는 제주의 향취를 맡을 수 있다.

탐방안내소의 주차장은 탐방객을 불러들이는 데는 한몫하지만 오르미에게는 반갑지 않다. 목초지를 가로질러 가면 만나는 노꼬메오름 탐방길 초입은 음침한 삼나무, 해송숲속으로 난 야자매트길에 잔설의 한기를 내 뿜으며 묘지까지 안내하는 으스스한 길이다. 그러나 잘 단장되고 안내된 탐방길(경사도와 남은 거리표시)이 주는 평안과 여유를 가지고 해송과 잡목 사이로 난 현무암과 안전줄이 쳐진 나무계단을 따라 가파른 능선을 오르면 따뜻해진 몸이 노꼬메오름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잡나무, 해송숲이 끝나면서 흰히 트인 풀밭, 억새길이 심표를 건내 준다. 손가락 한 마디만 펼쳐도 닿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하늘선 안에 노꼬메오름도 같이한다. 완만한 풀밭 능선을 따라가는 눈길은 어디에서 멈춰야 할지를 모르나 앞서가고 있는 발걸음이 먼저 알고 멈춘다. 한라산 서남자락으로 펼쳐진 오름군과 함께하는 곳자왈을 보노라면 상승기류를 타고 높이 떠 있는 나를 발견한다. 서남쪽 능선 탐방로를 따라 정상으로 향하는 조망은 잠시도 발길을 볼 겨를이 없게 만든다. 한라산이 더 멋진 한라산 주변 풍경을 안내하기 때문이다. 북벽분화구를 따르는 윗세오름을 따라 펼쳐지는 점점으로 이어지는 오름군들 자락은 수평선으로 이어지면서 제 역할을 다 한 줄 알았는데 제주의 남서북해안으로 안내한다. 대정·한경·한림·애월·제주시로 그리고 망망대해를 지나 남해안으로 이어진다. 오른쪽 한라산, 왼쪽 제주북쪽 경관을 끼고 야자매트와 타이머메

트로 조성된 능선을 따라 정상에 올랐다. 왜 노꼬메오름인가를 느끼게 한다. 펼쳐지는 조망에 보고 듣고 느낌도 모자란다. 서북부해안에서부터 공제선을 따라 한라산까지 이어지는 오름군들과 눈치마를 두른 북벽분화구는 눈부시도록 멋지고 아름답다. 그렇게 한참을 넋을 잃고 있으면 바로 앞에 있는 또 다른 노꼬메(죽은노꼬메오름)가 손짓한다.

죽은노꼬메는 오름계곡을 사이에 두고 큰노꼬메와 연결되어 있어 형제간의 우애다짐은 좋은 것 같은데 온전히 나무계단을 오르내리며 방문한다는 것은 예사 정성으로는 안 된다. 방문 후 녹고뿔상자질을 탐방한다면 산책하는 여유를 가질 수 있으나 되돌아 올 것이라면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 목책계단이 끝나는 오름계곡에는 상작질과 노꼬메-괘물오름자락을 아우르는 산책로를 품은 삼나무숲이 맞이한다. 야자매트와 타이머매트길을 따라 오르는 죽은노꼬메 탐방길은 잔설이 덧옷을 입혀 탐방객을 지치게 하면서 쉬어가라 한다. 그리고 나도 노꼬메임을 잊지 말라 당부한다. 죽은노꼬메 답게 아담한 오름이다. 정상엔 잡목이 어울려 시야는 조금 가려지지만 그런대로 찾아 왔다는 표시는 할 수 있다. 아담한 정상표지석(해발 744.4m, 북서향말굽형화구)과 2개의 긴 의자가 탐방객을 반긴다. 오른쪽에 있는 형(큰노꼬메)을 보고 왼쪽 한라산을 보고 그렇게 마음에 새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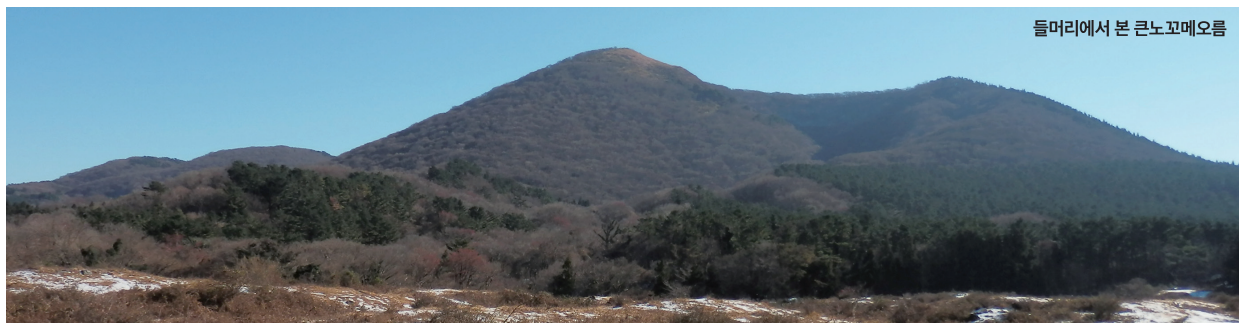
뚜벅이 평화로(1135번로) 운전면허시험장(282, 250번) →

큰노꼬메오름탐방소 2.4km

승용차 산록서로 큰노꼬메오름탐방소(화장실, 주차장)

괘물오름

방송의 날을 보내고 토요일 맑은 날 숙이와 같이 산록서로를 드라이브하면서 괘물오름(怪水岳, 표고 597.2m, 북동향말굽형화구) 탐



틀머리에서 본 큰노꼬메오름



큰노꼬메에서 본 작은노꼬메와 한라산

방안내소만 들릴 예정이었는데, 잘 단장된 산책길(녹고뢰권역상жат질)에 매료되어 탐방하게 되었다. 산록서로에 위치한 탐방안내소에는 많은 차들로 빈 공간 몇 면만 남아있다. 안내소에서 경찰특공대 왼쪽으로 난 임도를 들머리로 하여 타이어매트길-시멘트 포장길-야자매트길이 산책길 입구까지 안내하고 있다. 상жат질과 어우러지며 노꼬메오름과 궤물오름을 탐방할 수 있는 산책·둘레길은 야자매트로 황토를 보호하고 있으나 닳고 닳아 맑은 날에만 좋은 길이겠구나. 나무다리를 건너면 타이어매트와 야자매트길, 나무계단이 정상까지 이어주고는 능선 잔디에 인계한다. 탐방로는 울창한 넝쿨과 활엽교목, 삼나무가 햇볕 따먹기를 하면서 녹음을 즐기고 있고 정상에는 잔디와 억새를 산불감시초소가 지키고 있다. 정상 동남쪽에는 한라산 만형을 자처하는 노꼬메오름 형제가 양팔을 벌려 껴안고 한 몸체인양 다정한 모습이다. 내려오는 경사진 삼나무숲은 맨살을 드러낸 황토가 낮부끄럽구나. 테우리[목동] 막사에 들러 먹물도 조금 묻히고, 흐트러진 마음을 되돌리면서 가볍게 궤물오름탐방을 마무리했다.



뚜벅이 녹고뢰권역 상жат질탐방로(노꼬메·궤물오름 둘레길)

승용차 산록서로 궤물오름탐방소(음수대, 화장실, 주차장)

햇츠런파크에서 본 궤물, 노꼬메오름



바리메오름

가장 높은 오름 장구목(1,813m)과 오름의 제왕 다량쉬오름(동부권), 마왕 노꼬메오름(서부권), 여왕 따라비오름 그리고 군주급으로 바리메오름을 꼽을 수 있다. 표고 763.4m, 비고 213m, 깊이 78m, 둘레 130m의 원형분화구를 가진 산체다.

항상 그렇듯이 들머리에서 오름을 눈앞에 두고 탐방로 입구까지 찾아가는 것은 지루하고 힘든 길이다. 노꼬메오름과 결코 뒤지지 않는 들머리다. 탐방안내소에는 바리메오름을 시작으로 천아오름이나 한대오름 등을 탐방하거나 한라산둘레길(천아숲길과 돌오름길)을 산책하고자 하는 오르미와 산악자전거팀이 자신들의 하루를 준비하고 있다. 초입부터 타이어매트탐방길이 잡목숲을 따라 가파르게 정상으로 향한다. 5부 능선에서 잠시 오른쪽으로 완만하면서 숨을 돌리게 하고는 또다시 가파른 나무계단과 안전줄, 타이어매트길이 이어지면서 정상으로 거친 숨을 내뿜게 한다. 동쪽 등성에 오르면 남쪽(통신기지국과 긴 의자)과 북쪽 정상(긴 의자)에 올라 봉성·어음일대에 펼쳐진 오름과 한라산으로부터 굽이치는 산등성이를 감상할 수 있고 분화구 능선을 따라가면서 잡목 사이로 보이는 전경과 솜털같이 보송보송한 분화구를 보면서 오름탐방이 등산과 다름을 새삼 느낀다. 노꼬메오름 전망도 일품이지만 바리메오름이 가렸던 전망과 분화구는 내려가는 길을 한결 가볍게 한다. 오를 때는 보지 못했지만 3부 능선쯤에는 내려가는 탐방

길을 따라야 한다.

형 앞에 동생 측은바리메오름이 있다. 3개의 봉우리가 주봉(표고 725m)을 감싸 안은 모양으로 등성이 사방으로 분리되면서 비탈과 기슭을 거쳐 굽부리가 이어지는 곳은 골이 깊고 거칠며 잡목들이 뺨뺨하게 들어서 있다. 탐방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오르내리기는 무난하지만 탐방로 외는 발 디딜 틈도 없어 전체를 둘러볼 수는 없는 아쉬움이 남는다. 나무데크로 잘 단장한 입구는 두 갈래 길이다. 내려오는 탐방 부부에게 길을 묻는다. 우문현답이다. 어차피 돌아오는 길인데 완만함과 경사길을 먼저 가든 뒤에 가든 무슨 차이가 있는가? 분화구 입구에서 정상을 돌아 되돌아오는 길인 것을. 오른쪽을 돌아 왼쪽을 나오는 길이다. 잡목 사이로 타이어매트로 탐방길을 내주신 오름관리단체에 감사한다. 잡나무숲 사이사이 능선을 지나 정상에는 전경과 분화구를 조망할 수 있는 쉼터가 있어 탐방객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려 준다. 가쁜 숨소리에 수분 보충하고 분화구를 따라 반대편 등성을 거쳐 터진 분화구 입구에는 잣담과 삼나무가 오르미와 분화구와 숨바꼭질 하다 보면 초입 나무데크까지 오게 된다. 역시나 형만큼은 은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측은바리메도 알고 있구나.



뚜벅이 평화로(1135번도로) 국학원(282, 250번) → 바리메오름
탐방소 3.4km

승용차 산록서로에서 바리메오름탐방소 주차장(화장실, 주차장)

안천이오름

역시나 안천이오름도 바리메오름에 가려져 명함도 내밀지 못하고 있다. 영함사삼거리에서도 노루·붉은·한대오름만 안내하고 있다. 비포장으로 관리된 임도를 따라가면서 탐방로 초입(오름관리단체 지정판)을 찾아 분화구 자락에 준비한 묘지까지는 따라가는 길이지만 능선과 정상은 스스로 찾아가야 하는 등산로다. 해송·묘지·억새가 번갈아 가며 탐방길을 휘방 놓고 있다. 이 길이 탐방론가? 저 길이 탐방론가? 묘지까지 딱 헛갈릴 만큼씩 길을 내고 있다. 그곳이 한곳으로만 갔으면 됐을 것을. 결국 능선을 질러 정상에 올라서야 잡목과 조릿대 숲사이로 난 탐방로를 찾았다. 정상(표고 742m, 북향말굽형분화구)에서 분화구 능선을 따라 북쪽으로 가면 조금 전 헤맸던 그곳이요, 조릿대숲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면 임도와 만나나 탐방로로 인식하기엔 부족하다. 결국 묘지를 지키는 해송과 억새를 대어섯 발췌만 비집고 나서면 분화구 능선길이고 잡나무와 조릿대가 숲을 이루는 정상 등성을 한 바퀴 더 돌고 나서야 탐방길을 새길 수 있었다. 찾고 나면 이렇게 쉬운 것을. 항상 돌아 나오면서 느끼는 오르미의 기쁨이랄까 회한이랄까. 이것이 인생이 아닌가. 왜 안천이오름에 올랐는가? 노꼬메, 바리메, 노루·한대오름 등 걸쭉한 오름에 주독 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망도 없고, 분화구 노출도 거부하며 옷드리권역오름의 깊고 그윽한 맛도 없는데 말이다. 바리메오름에 밀려 외면당하고, 노루·한대오름 들머리를 열어주면서 외면당하고, 인근마을 효성이 지극한 김안천이님의 이름을 물려받아 안천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서운한 그런 마음을 속으로 삭여야 하는 안천이를 달래줬다고 생각하니 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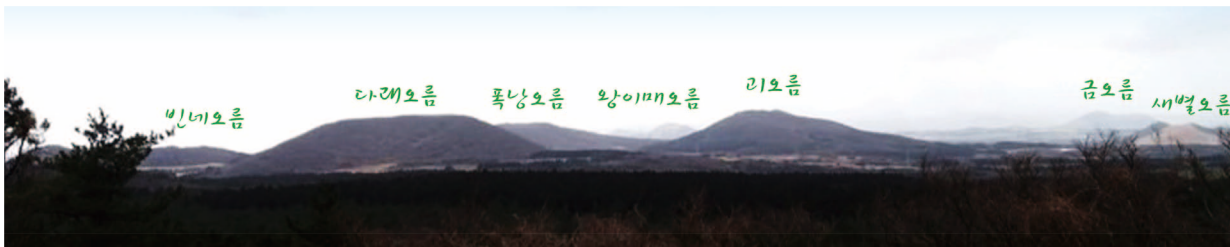


뚜벅이 바리메오름 탐방 후 임도 따라 진입

승용차 오름 서쪽능선 자락 국유임도 길옆

바리메오름 들머리에서 보기





안천이오름 전망

산세미오름

부르는 이름이 좋아 만나보고 싶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오름의 운치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찾은 날은 폭설경보가 내린 날이다. 제주의 항몽역사가 묻어나는 오름이면서 몇 안 되는 샘물이 있는 곳이다. 남서쪽기슭에 샘이 있으며 반대편 북동쪽 기슭에는 진수못(김수못)이 있다. 살아있는 샘이라 활천악(活川岳, 높이 652m, 북향말굽형화구)이라 했지만 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솟아 난다해서 세미[샘]가 산세미로 된 것이라 뜻있고 재미있는 이름이다. 보름 넘게 몰아치는 한파로 정월내도록 방만 지키다 오늘 2월 시작 눈과 함께 탐방나섰다. 산록서로에 접한 목장입구를 통하여 올라야 하는데 목장은 정적에 싸였고 깨끗하고 새하얀 수북한 눈! 누구도 밟지 않은 화이트카펫을 깔아 맞이하는 산세미오름이 겁난다. 아니나 다를까 폭폭 빠지는 3~40cm의 적설에 무릎 아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정해진 길도 없다. 잠깐 노루가 족의 흔적도 따라가다 8부 능선에서 헤어졌다. 잔뜩 눈을 안은 해송이 언제 눈 폭탄을 선물할지 모를 것이라는 생각은 채 서너 발자국도 못가서 받았다. 목도리를 타고 흘러내리는 눈은 온몸을 전율시킨다. 너무 강렬한 뜨거움 인가? 차가움 인가? 어떻게든 벗어나야 하는 마음은 더 많은 눈을 선물 받았다. 정해진 탐방로도 정상을 알리는 표식도 사방을 틔우는 전망도 없는 산세미오름에 올라 눈 폭탄만 맞고 내려가는 서글픈 마음이다. 북동쪽 분화구자락

진수못 고려충신김수장군유적비에 기대서 눈을 털며 마음을 가다듬어 시조한수 떠올린다. 踏雪野中去/不須胡亂行/今日我行跡/遂作後人程(西山大師). 제주산간 폭설, 오늘 같은 날 아니면 언제 눈꽃 만개한 오름을 탐방 할 것인가 하면서 나섰던 단순한 생각도 지웠다.


뚜벅이 평화로(1135번도로) 고성 2리(282, 250번) →
 산세미오름탐방소 3.2km

승용차 산록서로 산세미오름탐방소 노견 주차

천아오름

그해는 초하도 몹시 더웠다. 무더위를 피해 숲을 찾아 나선 것이 오름탐방이었다. 조랑말을 꼭 닮은 애마를 타고 산록서로(1117번 도로)를 따라 열안지·붉은·천아(광령)·노루손이·검은오름과 이열치열하였다. 한라산둘레길 천아숲길을 통해 찾아간다. 천아숲길 19번 쫓말을 지나 국유임도 삼거리에서 둘레길 반대 방향 북쪽 등산길을 따라가면 시원히 펼쳐진 들판과 함께 천아오름(표고 796m)이 딱 하니 버티고 땀 흘릴 준비를 하라고 한다. 광령천지류를 건너면 탐방로가 시작되면서 잡나무와 해송은 하늘을 가려 오르미의 그늘을 만들어 주고 조릿대는 땅의 열기를 막아주는 대가로 귀한 염분을 받아먹고 있다. 내무부 시절에 세운 대리석표시삼각점은 정상을 알리면서 분화구와 전망을 보여주고자 하나 제대로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한탄하나 그건 아닌 것 같다. 아무래도 오르미의 키가 작아서 그런 것 같다. 서북향말발굽분화구 능선을 따라 순환하는 등산로는 역새와 잡나무 숲으로 흔적을 야금야금 지우다 들키면서 일부는 등산길로 되살아나고 있다. 이 신록이 지나면 등산길이 좀 트일 것인가? 사면 중간쯤 갈림길로 내려왔으나 오십보백보다. 고사리장마를 맞아 막 솟아오른 아가 손보다 더 곱고 예쁜 고사리들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어 맞잡아 주었다.



산세미오름과 진수못



두박이 산세미오름과 연계

송송차 천아오름산입목장/둘레길천아숲길 광령천 간이주차장

녹고외권역탐방

녹고외권역은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장전초등학교 학구권을 중심으로 장전리, 유수암리, 소길리 등 세 마을의 역사와 생활문화, 생태체험이 어우러진 마을탐방길·올레길을 가지고 있다. 제주중산간 마을의 역사, 문화탐방로인 쇠질(牛路, 11km)과 중산간의 목축문화와 오름을 탐방하는 목장탐방로인 상작질(11km)이 그것이다. 마을의 상징인 녹고외(노꼬메)오름은 3개 마을에 정신적, 심성적 원천의 역할을 해왔으며, 오래전부터 사슴이 살았던 곳이라 하여 그 이름에서 연유가 되었고 그 형상은 말발굽형 모양의 분화구다.

용암부리 울통불통하고, 스코리아Scoria가루 푼푼 날고, 잣성따라 소물고 가는 옛길은 추억과 함께 흔적으로 되살아나고 있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더 많은 길이다. 아스팔트길이 시멘트길이 찾길이 그렇고 농촌체험휴양마을이라는 사람 때가 묻은 마을이 그렇다. 처음처럼 그런 길이었으면 좋으련만. 사람이 만들었든, 자연적으로 생겼든 모두 사연을 가지고 있는 길임에는 틀림없다. 소를 몰고 수없이 오갔을 테우리와 농부의 숨소리가 들리듯 삶이 묻어있는 쇠질, 자연 재해의 쓰라림을 간직하고 있는 잣길, 바쁜 일상을 쫓아가는 새길이 꽃자왈과 마을을 굽이굽이 돌면서 보여주는 속살을 놀멍쉬멍 느릿느릿 걸으면서 전통문화와 역사를 소개하는 글밭 이야기에도 귀 기울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화와 역사가 발걸음에 묻어날 즈음 시작점에 와있는 내가 미워진다. 놀면서 쉬면서 걷자 하지 않았소.

깊어가는 계절의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이 길을 걸어야 하는 시간은 정해진 바 없으니 누구라도, 그리고 언제라도 걸어도 좋은 길이다. 한발 더 건너면 강렬한 왕벚꽃이 발길을 지나치기 못하게 한다. 이름하여 제주왕벚꽃축제(4월 초순)-화천월지花天月地장전리벚꽃길이다.



연계관광지

렛츠런파크 제주 자연과 어우러진 녹색질주 테마공원. 나이를 아우르는 다양한 놀이터와체험공간, 돛자리 깔고 편히 쉴 수 있도록 꾸며져 있는 녹색의 가족공원에서 휴식과 레포츠를 함께 할 수 있고, 철 따라 메밀꽃, 해바라기꽃, 코스모스꽃밭 한가운데서 당신만의 멋진 전경사진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볼 수 있다. 그런저런 경마장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룻날 잡아가 보셔요. 초장 낫발 경마 행운도 함께 할 것입니다.

제주불빛정원과 조각공원 해가 너무나도 짧은 제주의 겨울밤 어디 가서 뭐하지? 정원 전체가 사진관인 곳. 매월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웅장한 일몰, 막 찍어도 인생사진이 나오는 인생사진관이 있는 곳 제주불빛정원과 화순꽃자왈에서 대규모로 펼쳐지는 어둠과 빛과 별들의 향연이 환상의 세계로 빠져들게 하는 서귀포 제주조각공원·포레스트한타지아로 가자. 돈 없으면 납읍 선운정사 LED꽃 보러 가자. 제주의 밤도 즐기고 불빛에 투영된 자신도 보자.



렛츠런파크 경주로(해바라기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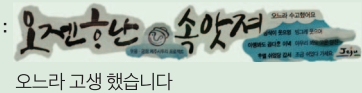
제주불빛정원



제주조각공원 포레스트한타지아

제주 문화

제주말 익히기:



오느라 고생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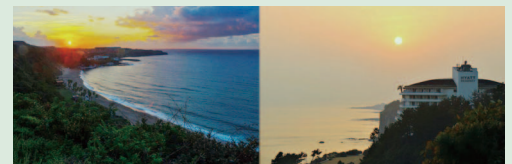
제주음식: 제주 사람들은 술란이[옥돔]이가 아니면 생선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고 한다. 옥돔이 빠지면 헛잔치, 헛제사라든가 고깃국하면 옥돔국으로 통하는 제주살에서 고귀한 생선임을 알 수 있다. 제주의 바닷바람과 햇볕에 참옥돔을 꾸덕꾸덕 말렸다가 참기름을 발라 석쇠에 노릇노릇하게 구워 먹는 옥돔구이는 속살이 촉촉하고 부드러워 그 맛이 일품이며, 고소하게 씹히는 옥돔 한 점을 뜨끈한 밥 위에 얹으면 왕후장상의 밥상이 부럽지 않은 식도락을 제주에서 즐길 수 있다.



제주명소

쉬리언덕·올인벤치와 숨비낭길: 제주의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는 숨비소리와 자갈찬 현무암돌담으로 안내하는 황톳길, 휴길, 나무데크길을 해송과 꽃밭을 따라 굽이굽이 도는 숨비낭산책길(1km) - 그 시작과 끝에는 환상적인 중문해수욕장의 풍경과 은은하게 밀려오는 파도소리에 맞춰 휴식의 여유와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 중문관광단지에서 무료(입장, 주차, 휴식)로 즐길 수 있는 곳. 쉬리벤치·숨비정원과 올인벤치·롯데주차공원에서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쉬리(관제규 감독/1999.2./한성규, 김윤진), 올인(SBS 드라마/2003.4./이병원, 송해교), 정상회견장(한·미·일)

규, 김윤진), 올인(SBS 드라마/2003.4./이병원, 송해교), 정상회견장(한·미·일)



쉬리언덕에서 본 서귀포의 일출과 일몰

제주사람들과 스토리텔러들은 말한다. 제주에는 오름이나 봉황이 아닌 7대 산, 5대 산이 있다. 가파도올레길(10-1길) 북동해안 산책길에 6개의 산 전망대 포토존이 있다. 물(제주도)에 가면 탐방하기로 했던 약속을 다음 호에 독자들과 같이 한다.